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대형 손보사,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

□ 일본의 주요 손해보험회사인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최근 업계 1위 도쿄해상홀딩스를 제치고 중국 재산보험(손해보험) 시장에서 외국계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
-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중국의 재산보험시장에서 작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일본계 손해보험사로는 1위이자 외자계 보험회사들 중에서는 차티스(AIG에서 개명함)에 이어 2위를 차지함.
- 올해 4월 아이오이손해보험과 닛세이도와손해보험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현재 45.6%(FY2008 기준)에 달하는 아시아 보험시장의 매출 비중을 더욱 확대해 명실공히 글로벌 보험회사로서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새로운 회사의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함.

□ 도쿄해상홀딩스도 최근 인도시장 진출 계획을 최초로 밝히며 아시아 신흥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음.

- 도쿄해상홀딩스는 설립 이듬해인 1880년에 외국에 지점을 설립한 만큼 일찍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을 가져왔으며, 특히 재작년 영국보험회사 킬른과 미국의 필라델피아 콘솔리데이티드를 각각 약 950억엔, 5,000억엔으로 연달아 인수하며 신흥시장 뿐 아니라 서구 보험시장에까지 진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.
- 또한 작년 11월에는 일본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인도 생명보험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존에 진출한 손해보험 사업과의 사업 다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.\*

\* 2009. 11. 30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'도쿄해상홀딩스, 일본 최초 인도 생·손보시장 진출' 편 참조

- 일본 손보업계는 도쿄해상홀딩스를 포함해 조만간 3개 대형보험회사들의 경쟁체제가 구축될 경우 M&A(인수합병) 및 제휴 등의 방법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의 성패가 향후 기업의 성장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시장 진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 것으로 전망됨.

(FujiSankei Business I, 1/26)